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연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종교화를 통한 주관적 심리치유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2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박 하 영

종교화를 통한 주관적 심리치유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정 연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박 하 영

# 인 준 서

박하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11월

심사위원장 조 병 왕 (인)

심 사 위 원 박 영 근 (인)

심 사 위 원 임 상 빈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작업한 본인의 작품 주제인 종교화를 통한 주관적 심리치유(治癒)에 대한 작업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특히 형성배경과 과정을 내용과 조형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본인의 개인적인 상처가 유발하는 심리적인 우울함과 불안에 대해 종교화 형식으로 제작하고 치유의 과정과 그 의미를 탐구하며 표현예술인 회화작업을 통해 치유하는 자아를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표현예술이 심리적 치유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본인이 느낀 경험과 감정을 작업 안에 녹여내어 효과적으로 시각화하고자 했다.

인류는 수렵 채집시대부터 토테미즘을 시작으로 애니미즘, 샤머니즘을 거쳐 문명을 이루고 규칙과 사상을 정하며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 갔다. 그렇게 인류는 생존해 왔고 생존은 신화와 종교로 바뀌었으며 함께 성장해왔다. 현대에 이르면서 종교의 신비한 현상들은 과학으로 바뀌었고 종교의 역할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삶에 종교는 역사와 문화로써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본인 역시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사람이 종교를 소중하게 여긴다.

본인의 작업 내용과 형식은 주로 종교화에 맞닿아있다. 많은 화가들이 풍경, 정물, 추상, 종교 등 어떤 주제를 선택하든 그것은 동시대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 화가 자신의 시대적 상황이나 개인적인 부분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본인의 작업도 극히 개인적인 체험에서 비롯되었다. 본인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시기에 어렸지만 감정의 혼란함을 느끼고 상처를 받았었다. 하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보통 자기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 심리적으로 자기방어를 하고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 방법을 찾는다. 그래

서 본인이 선택한 방법은 종교였다. 종교는 집단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인 감정과 결속이라는 부분을 강하게 하고 개인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치유의 관점에서 종교는 본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 본인의 작업은 종교와 예술을 결합한 극히 개인적인 결과를 생각할 수 있다. 본인의 경우에는 심적으로 깊이 접근하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본인이 종교화를 통해 개인적인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심리적으로 치유하고 있으며 본인의 창작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치유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과 종교 특히 그리스도의 종교화를 중심으로 본인에 대해 서술하고 나아가 창작이 가져 온 주관적인 치유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본인의 작업이 심리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종교화라는 측면을 설명하고 ‘나’라는 한 인간의 삶과 어떤 관계로 연관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조형적인 측면에서는 중첩과 질감, 색을 통해 감정의 층과 굴곡 등의 변화를 나타내고자 했다. 아울러 창조적인 예술 활동이 개인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밝혀보고자 한다. 나아가 다양한 심리적 상처를 보호하는 방어기제는 많지만, 종교와 예술이 주는 치유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3
1. 작품의 내용적 전개 .....	3
1) 작품의 동기 .....	3
2) 종교화와 심리 치유 .....	4
2. 작품의 조형적 전개 .....	8
1) 중첩과 질감 .....	8
2) 감정에 따른 색의 변화 .....	11
3. 작품 분석 .....	13
III. 결론 .....	28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 [작품 1] <Untitled>, 52.0×45.5cm, mixed media(acrylic, water color, pigment, medium, clear gesso, varnish) on canvas, 2019.
- [작품 2] <Untitled>, 65.1×53.0cm, mixed media(acrylic, water color, pigment, medium, clear gesso, varnish) on canvas, 2019.
- [작품 3] <Untitled>, 90.9×72.7cm, mixed media (acrylic, water color, pigment, glitter, medium, clear gesso, varnish) on canvas, 2019.
- [작품 4] <Untitled>, 130.3×97cm, mixed media (acrylic, water color, pigment, medium, clear gesso, varnish) on canvas, 2019.
- [작품 5] <Untitled>, 100×100.3cm, mixed media (acrylic, water color, pigment, ink, medium, clear gesso, varnish) on canvas, 2019.
- 2020
- [작품 6] <Untitled>, 162.2×112.1cm, mixed media (acrylic, water color, pigment, medium, clear gesso, varnish) on canvas, 2020.
- [작품 7] <Untitled>, 162.2×130.3cm, mixed media (acrylic, water color, pigment, medium, clear gesso, varnish) on canvas, 2020.
- [작품 8] <Untitled>, 193.9×130.3, mixed media (acrylic, water color, pigment, medium, clear gesso, varnish) on canvas, 2020.

## 도판 목차

- [도판 1]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Piero della Francesca) 자비의 어머니  
(Madonna della Misericordia) (부분), Pinacoteca Comunale 소장,  
1450. 패널의 유채, 273×330cm.
- [도판 2] 마티아스 구뤼네발트(Matthias Grünewald), 이젠하임 제단화 (Isenheim Altarpiece)  
(첫번째) 운터린덴 미술관 소장, 1511-1515경. 패널의 유채,  
(중앙) 269×307cm,(날개) 2.32×75cm, (Predella) 76×340cm.
- [도판 3] 조르주 루오 (Georges Rouault), 그리스도의 얼굴(분홍과 회색의 하모니)  
(Sainte Face (harmonie rose et grise)), 퐁피두 센터 소장, 1933,  
종이를 덧댄 캔버스에 유채와 과슈, 27,5×21,5cm.
- [도판 4] 조르주 루오 (Georges Rouault), 흰 모자에있는 여자 (녹색 배경)  
(Femme au chapeau blanc (fond vert)), 퐁피두 센터 소장,  
1937-1945, 종이를 덧댄 캔버스에 유채와 과슈, 55,5×36,6cm.
- [도판 5] [작품 2] 진행 과정.
- [도판 6] [작품 2] 진행 과정.
- [도판 7] 본인 작업, 캔버스에 아크릴릭, 수채, 미디움, 바니쉬 27×34cm, 2019.
- [도판 8] 본인 작업, 캔버스에 아크릴릭, 수채, 피그먼트, 미디움, 바니쉬, 50×60.6cm, 2019.
- [도판 9] 본인 작업, 종이에 아크릴릭, 수채, 미디움 바니쉬, 18×25cm, 2019.
- [도판 10] 본인 작업, 캔버스에 아크릴릭, 수채, 피그먼트, 미디움, 바니쉬, 53×45cm, 2019.
- [도판 11] 본인 작업, 캔버스에 아크릴릭, 수채, 미디움, 바니쉬, 36×61.5cm, 2019.
- [도판 12] 본인 작업, 캔버스에 유채, 90.9×72.7cm, 2013.
- [도판 13] 본인 작업, 캔버스에 아크릴릭, 미디움, 바니쉬, 90.9×72.7cm, 2016.

- [도판 14] 본인 작업, 캔버스에 아크릴릭, 미디어, 바니쉬, 40.9×31.8cm, 2017.
- [도판 15] 본인 작업, 종이에 수채, 미디어, 바니쉬, 25×18cm, 2017.
- [도판 16] 두치오 디 부오닌세냐(Duccio di Buoninsegna, 1308-1311), Maestà (Madonna with Angels and Saints), 우오모 오페라 미술관 소장. 1311, 나무의 템페라 214×412cm.
- [도판 17] 조토(Giotto di Bondone, 1266-1337), 주님 승천 (No. 38 Scenes from the Life of Christ: 22. Ascension), 스크로베니 예배당 소장, 1304-06, 프레스코 벽화, 200×185cm.
- [도판 18] 암브로조 로렌체티(Ambrogio Lorenzetti), 좋은 정부의 도시 (Allegory of the Good Government) (부분), 푸블리코 궁전 위치, 폰 다지 오네 무세이 세 네시 소유, 1338-1340, 프레스코 벽화 7.7×14.4m.
- [도판 19] 안드레아 디 보나이우토,(Andrea di bonaiuto), 토마스 아퀴나스의 승리 (The Triumph of St. Thomas Aquinas) (부분),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 소장, 1366-1367, 프레스코 벽화.
- [도판 20] 마케도니아의 오흐리드 성 클레멘트 성당 소장, 14세기. 팬넬의 템페라 95×80cm.
- [도판 21] 시모네 마르티니(Simone Martini), 수태고지(Annunciazion), 우피치 갤러리, 1333. 패넬의 템페라와 금, 305×265cm.
- [도판 22] 시모네 마르티니(Simone Martini), 수태고지(Annunciazion), (부분) 우피치 갤러리, 1333. 패넬의 템페라와 금, 305×265cm.
- [도판 23] [작품 1] (부분)
- [도판 24] [작품 2] (부분)
- [도판 25] [작품 3] (부분)
- [도판 26] 악타이온에게 활을 겨누고 있는 아르테미스, 크라테르(도자기종류) 보스턴 미술관 소장, 기원전 470.

# I. 서론

우울증을 유발하는 계기는 ‘상실’일 때가 많다.<sup>1)</sup> 사람들은 항상 자신과 관계된 것을 지키기 위해 애쓴다. 그것이 물건, 재산, 자아 등 상실은 강렬한 감정을 일으키는데, 특히 개인의 취약성에 가까운 것일수록 크게 작용한다. 또한 사람은 이처럼 취약성이 한계를 넘으면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 같다고 린다 개스크(Linda Gask)는 서술하였다. 인간의 과거는 현재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바로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의 특별한 감정은 통제하고 싶어도 어느 순간 무의식적으로 올라와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과거와 마주하는 것은 심리치료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과거를 섬세하게 마주하고 흘려보내어 현재의 영향력을 벗어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본인도 유년기 아버지의 상실로 인하여 생성된 감정이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끼쳤기에 심리적으로 치료가 필요했다. 이후 심리치료는 약물과 심리 상담을 병행했고 한편으로 ‘나’<sup>2)</sup>는 정신적인 구원은 내가 믿는 종교로도 치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직접적으로 본인이 종교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원인이며 특히 정신적인 wisdom therapy(지혜요법)<sup>3)</sup> 방법으로 심리적인 치유를 도모하면서 나아가 회화를 통해 본인이 경험한 내적 감정을 표출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하게 된 계기가 된다. 이처럼 본 논문에서는 종교화 형식을 빌어서 심리치유를 통해 주관적 관점에서 작업하는 것을 동기에서부터 조형적인

---

1) 린다 개스크 (Linda Gask), 「당신의 특별한 우울」, 월북, 2020, p.11, pp.50-63, p.254 참조  
2) 본인, 나, 내(나의)의 사용 구분,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본인을 강조할때는 ‘나’를 나의 행위를 강조할때는 내(예시-내 생각)를 사용하였다.  
3) 지혜 요법(치료)은 직면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용적이며 과학적으로 확립된 접근 방식이라고 한다. 지혜 치료의 핵심 구성 요소 중에는 인지 행동 치료, 마음 챙김 명상, 적극적인 검손 등이 있다. 수십 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 각각은 고통과 갈등을 완화하는 데 놀라운 이점이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분노, 두려움,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과 같은 다양한 수준의 고통과 갈등을 동반하는 감정을 완화시키고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https://www.wisdomtherapy.com/wisdom-therapy> 참조

방법까지 연구한 것이다.

본론의 1장에서는 ‘작품의 내용적 전개’로써 종교화가 본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종교화(혹은 예술)가 심리치유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작업을 통한 개인의 심리치유의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작품의 조형적 전개’로써 작품에서 조형적 특성을 ‘감정의 따른 변화’, 중첩과 질감’으로 나누어 표현 방법론에 대해 드러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작품 분석’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제작 의도와 조형적 관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결론에서는 본 논문을 통해 종교화를 통한 주관적 심리 치유에 대한 개인적 주장을 밝히고, 이에 따른 학문적 성과와 제작과정의 아쉬움 및 앞으로의 작업 방향에 대해 제시하려고 한다.

## II. 본 론

### 1. 작품의 내용적 전개

#### 1) 작품의 동기

본인이 초등학교 2학년일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어린 시절 인간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실감하였다. 현시점에서 어린이인 그때의 나를 돌아보면 당시엔 너무 큰 사건이라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그저 시선에서 ‘피가 돌지 않는다.’는 확인과 ‘죽었다’ ‘나와는 다르다’라는 감정이 확실하게 느껴졌다. 삶을 오래 살지 않은 어렸던 본인에게도 내 환경이 무엇인가 변했다고 느낀 시간이었다. 너무나도 큰 존재의 상실로 인해 그때부터 삶과 죽음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본인의 관심사가 감정, 기억, 심리 등 내향적인 것에 편향되기 시작하였다. 본인에게는 가장 관심 있는 ‘나’를 관찰하는 것이 쉬웠고 자연스러웠다. 이때부터 ‘나’의 얼굴과 표정, 감정이 뒤섞인 자화상을 그리게 된다. 관찰한 나 자신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내 감정에 더 충실하고 외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인간이 자신의 정서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적절하게 표현 할 수 있을 때 대인간 문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에 보다 유능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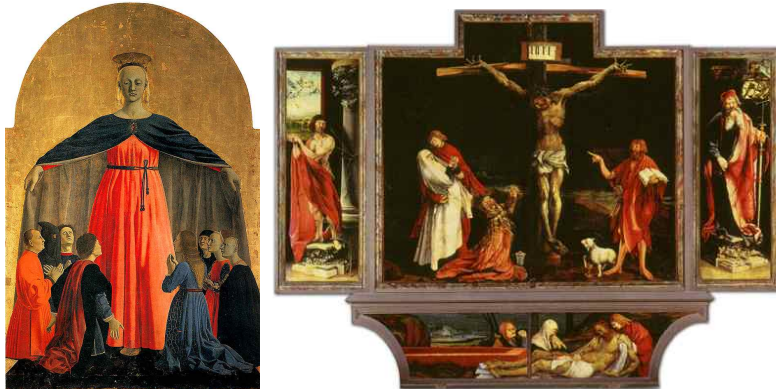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은 자화상 작업이 단순하게 ‘나’ 라는 개인의 관찰인 줄 알았으나 상술한 바와 같이 그 개인을 이루기 위하여 인류, 역사, 문명, 종교, 이 모든 것들이 깊이 자리잡혀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

4) 심혜숙, 왕정희,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001, p.173

특히 사랑하고 아끼던 대상의 상실이나 분리를 경험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처음 하는 일은 상실의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다. 감정과 감각을 마비시켜 그 충격이 몸과 마음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한다.<sup>5)</sup> 이에 본인은 자화상에서 인간의 과거와 현재를 보듯 종교화가 인간의 역사를 집약적으로 잘 승화시킨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장 먼저 연구한 것은 크리스티교 기반의 종교화였다. 본인이 현재 크리스티교를 믿고 있으며 ‘나’라는 사람은 유년기부터 종교에 관심이 많았고 종교는 감정을 쏟아 낼 수 있는 치유의 형태라고 생각했다. 특히 크리스티교의 종교화에서 형상, 특히 얼굴에 대한 연구는 본인의 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 2) 종교화와 심리 치유



[도판 1] 좌,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자비의 어머니, 1450, 판넬의 유채, 273×330cm

[도판 2] 우, 마티아스 구뤼네발트, 이젠하임 제단화, 1511-1515경, 패넬의 유채,

(중앙) 269×307cm, (날개) 2.32×75cm, (Predella) 76×340cm.

5) 김승환, 「현대미술에 나타나는 숯불과 해골: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작품을 중심으로」, 현대미술학회, 2016, p.11

인간의 욕구는 가질 수 없는 것, 갖지 못한 것을 갖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은 긍정적인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어떤 것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존재라고 한다.(Henry Gleitman, 1925-2015, 인지심리학) 이러한 관점은 필연적으로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강조하게 된다. 매슬로우(Abraham Harold Maslow, 1908-1970 심리학자)는 이러한 욕구를 결핍욕구(deficiency need)라고 명명했다. 이런 욕구들에 관한 한 인간은 부족함을 느끼고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한다.<sup>6)</sup> 사람은 욕구를 충족시켜야 살아갈 수 있다. 부족한 것이 단순히 비교를 통해 알게 된 상대적인 결핍으로 인해 생긴 욕구인지 아니면 정말 필요하므로 좋아하는 것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저 공허한 마음을 충족을 위해 경쟁하여 얻게 되면 허탈함을 느낄 뿐이다. 결핍의 욕구는 결핍이 생기면 이에 반응하는 욕구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 결핍이 생기고 대부분은 이 결핍에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배가 고프지 않기 위해서 미리 먹는 사람은 없다. 대부분은 배가 고프다는 결핍이 선행하면 음식을 섭취한다. 안정에 대한 욕구도 마찬가지다. 안정된 상태가 깨지면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 움직인다.<sup>7)</sup>

종교에서는 아직 이러한 심리가 학문적으로 나뉘고 설명되기 전에 당시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 존재론적 질문 즉, 인간은 무엇인가? 그러하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수 세기를 걸쳐 서술하였다. 특히 종교의 교리를 인용한 종교화는 문맹률이 높은 시기 포교의 역할로 시작되었다. 당시 사람들도 현대 사람들처럼 질문하며 살아갔을 것이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였을까. 요즘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 조언을 얻을 것이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책에서 답을 찾아다녔을 것이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위로받고 행복해지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 사람들

---

6) 이임정, 윤관호, 「자기효능감을 통한 인간욕구의 이해」, 한국경영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8. p.234  
7) 김수빈, '욕망'과 '욕구'의 구별 평생학습타임즈 인용, <http://ltimes.kr/?p=54324>, 2020년4월3일.

은 종교화를 보면서 질문에 다가갔을 것이다. 자신이 불안한 이유를 찾는 데 많이 사용되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자비의 마돈나(보호 외투의 마돈나)도식은 이를 나타내는 형태 중 하나이다. 내 외부적인 이유로 생겨나는 불안함에 대해 사람들은 악마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장치였을 것이다. 프랑스의 콜마르(Colmar) 지역의 성 이젠하임 제단화(Isenheim Altarpiece)는 페스트와 맥각증독증(성 안토니우의 불)<sup>8)</sup>환자의 병원이자 호스피스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성 안토니 수도원(Monastery of St. Anthony)의 교회에 있었다. 원인을 모르고 죽어가던 중세인들은 자신과 같은 병으로 고통 받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그림과 이후 깨끗한 모습으로 부활한 예수의 그림을 보며 자신과 같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공감과 병이 치유될 거라는 희망을 얻었다고 한다.<sup>9)</sup> 제단화나 성화뿐만 아니라 민화, 달마도, 십장생, 동물상이나 특정 보석들은 액운을 막고 좋은 기운을 들여온다고 믿었다. 그림을 그린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안 좋은 일이 빚겨나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성인(聖人)들과 나를 동일시 한다는 점에서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조르주 루오(Georges-Henri Rouault, 1871-1958)는 그의 신앙심에 입각해 어두운 세상의 고뇌, 사회적 약자의 희생과 구원등 그리스도교적 주제로 작품활동을 하였다.<sup>10)</sup> 이처럼 종교 교리의 힘든 현실속 약자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시각적으로 표현된 종교화들을 보며 현대에 들어와서도 사람의 대한 공감과 이타성의 표현을 보며 본인 또한 종교화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되었다.

8) 약사공론 기자, 성 안토니의 불'을 일으키는 맥각균의 정체 <25>피테르 브뢰헬의 회화 『걸인들』 <https://www.kpanews.co.kr/column/show.asp?category=&idx=82436>, 약사공론, 2013년 6월25일

9) “블로그 야옹。 | 이젠하임 제단화”justinKIM 블로그, 2012년3월30일 수정, 2020년10월22일 접속, <https://m.blog.naver.com/justinceo/30134952505> 이젠하임 제단화가 있는 성 안토니오 수도원은 지금도 신도들이 피부병 치료를 소망하며 찾아오는 명소이다.

10) “프랑스의 화가’ 조르주 루오 (Georges Rouault)” Accountant Beyond Artist 블로그, 2016년4월16일 수정, 2020년12월20일 접속, <https://m.blog.naver.com/leespider/220684843543>



[도판 3] 좌, 조르주 루오, 그리스도의 얼굴(분홍과 회색의 하모니), 1933,  
종이를 덧댄 캔버스에 유채와 과슈, 27,5×21,5cm.

[도판 4] 우, 조르주 루오, 흰 모자에있는 여자 (녹색 배경), 1937-1945,  
종이를 덧댄 캔버스에 유채와 과슈, 55,5×36,6cm.

조르조 루오가 “나는 망망대해의 미미한 먼지, 바람에 씻기는 가련한 선원, 어두운 암흑 속에서조차 성스러운 평화와 빛을 사랑하노라.”<sup>11)</sup> 라고 이야기 했듯이 철학자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도 인간을 ‘칭탁 없이 이 세계에 내던져진 불안 속에 살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nichtigen Kreatur)’이라고 했다.<sup>12)</sup> 앞 서 루오나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존재의 의미는 서로 다르겠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인간은 미약한 것임에는 틀림없어 보였다. 미래는 실존하지 않는다. 적어도 본인이 힘들었던 시기의 생각은 그랬다. 본인은 한 때 삶의 의미를 잃은 채 살다가 병원에 다니면서 조금씩 회복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치유의 도구로 그림을 생각하게 된다.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그려왔던 그림이었는데 그동안은 상황적으로 자발적인 그림을 그렸다

11) 한상봉, [루오] 예술하는 노동자, 조르주 루오,

<http://www.catholicworker.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 가톨릭 일꾼, 2018년2월18일

12) 하이데거의 ‘영사성’과 ‘반복’ 존재는 생명의 강물의 블로그, 2020 2월 24일 수정, 2020년 12월 22일 접속, <https://m.blog.naver.com/saiculture/221822992546>

고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단계별로 실천 가능한 그림을 목표를 잡고 그걸 하나하나 완성해나갔다. 물론 지금까지의 나를 존재시키는 바탕은 어린 기억 속 과거가 중첩되어 현재에 있다. 아직 내면의 나는 상실한 과거의 감정에 충실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분석심리학자 융(Carl Gustav Jung, 1875 - 1961)은 건강한 삶을 우리 내면의 요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 요청에 귀를 기울여야한다.<sup>13)</sup>고 하였다. 과거는 억누르려고 하지만 현재의 삶에 영향을 주며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고 한다. 그래서 본인은 과거를 들여다보는 과정을 다양한 레이어로 표현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떠올리며 wisdom therapy(지혜요법)으로 심리를 치유하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을 주고 있는 종교화 안의 대상인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타인의 생각을 자꾸 의식했지만 한참 집중해서 작업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한동안 작품 진행이 들쭉날쭉한 것도 현재 심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 거라고 생각했다. 작업은 내 상태를 알 수 있는 척도이자 보조 역할을 해오고 있다.

## 2. 작품의 조형적 전개

### 1) 중첩과 질감

본인은 새롭게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 심리적으로 익숙해지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안다고 착각하게 된다고 한다.<sup>14)</sup> 이러한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은 위와 같은 글 속의 의미를 적용하려고 그림

---

13)“[인문02] 융의 분석적 심리치료” 부뚜막 강아지 블로그.2020년5월30일수정, 2020년11월12일 접속, <http://blog.naver.com/faransan/222075585206>

14)김경일, [CEO심리학], 친숙한 것과 아는 것의 차이,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3/06/444513/> 매일경제, 2013년6월7일.

아서 마크맨(Arthur B. Markman), 「스마트 싱킹(Smart Thinking)」, 박상진 옮김, 진성북스, 2012, pp.149-156 참조

도구를 항상 곁에 두었다. 그렇게 단순히 물감 등 미술도구들에 익숙해지면 작업에 임할 때 그림 그리는데 부담감이 줄어들 것이라 판단하였다. 처음에는 다양한 색의 물감 층을 쌓고 뜯는 행위를 반복하였다.(도판 7-11 참조) 물감을 만지는 행위가 안정된 뒤부터는 그 위에 이미지를 그렸고 선택한 인물이 본인의 주관적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작품을 시작하였다. 이후 한 단계 한 단계 하고 싶은 과정을 추가했다. 색을 바꿔보기도 하고 질감을 바꿔보기도 하였다. 시간과 공간이 사건의 중첩이라 볼 수 있다면 중첩된 각 재료들을 한 부분 공간, 사건, 시간 등으로 표현하고 여러 겹 쌓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도판 5]

[도판 6]

작품의 기본적인 진행 방법과 다음과 같다. [도판 5] 과 같이 처음에는 두 개의 바탕으로 시작한다. 바탕 하나에는 배경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차용한 그림을 그린다. 작업 위에 미디엄과 바니쉬를 안료와 아크릴 물감, 수채화 물감을 섞어 칠하고 투명하게 건조되면 열풍을 표면에 가열하여 기포가 많은 질감을 만들어 냈다. 이는 내 감정의 복잡함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이 과정은 여러 번 중첩하고 배경 바탕을 마무리한다. 또 하나의 바탕에서는 이미지를 그린다. 이미지를 종이에 스케치한 뒤 그 위에 투명 셀로판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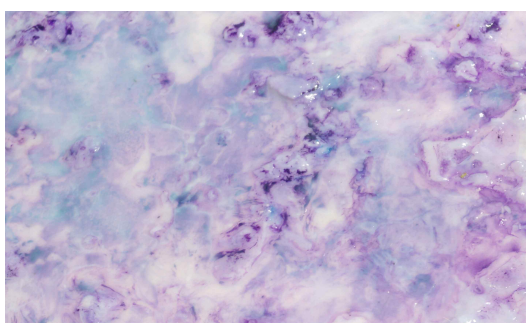
프를 붙여 표면을 매끄럽게 만든다. 테이프 표면 위에 바니쉬, 투명 젯소 순으로 표면을 바르고 건조된 젯소 표면 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다. 그림이 완성되면 물감 덩어리는 마치 스티커처럼 분리할 수 있게 된다. 이미지를 떼어내어 [도판 6]와 같이 배경이 되는 바탕에 묶은 미디엄을 이용하여 그림을 붙였는데 따로 그림을 그린 이유는 전체적으로 한 겹 한 겹 쌓아가는 물감 층들을 일상이라고 보았다. 또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그래서 붙여 넣었다. 그림 속의 인상을 일일이 그릴 때처럼 당시 감정들을 떠올리며 본인에게 특별히 영향을 끼치는 일들을 그려 넣었다. 두 바탕을 합치면서 감정들의 표현이 거칠게 혹은 꾸준히 중첩되도록 작업했다.

작업적인 성취감이 하나씩 쌓이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그림 크기도 키워갔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작업이 점점 진행되는 동안 온전히 타인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리니 솔직하게 내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감정 기복을 온전히 느끼며 왜 내가 그런 감정이 드는지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 작업과 나의 감정을 지켜보는 것을 함께 진행한 것이다. 하지만 작업을 하는데 있어 감정 치유가 다시 복잡해져 작업의 형태나 계획했던 이미지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고 형태가 무너지고 원하던 색이 표현되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다. 그림이 생각한 대로 그려지지 않아 힘들고 나아가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힘겨워졌을 때 본인의 감정을 재인정하고 처음 ‘물감 만지기’를 시작했을 때처럼 당시의 기억을 목표로 그림을 진행하였다. 이는 점차 본인의 작업에서 복잡한 마음의 층을 표현하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중첩의 효과가 중요해 졌고 표면의 질감이 불규칙적으로 생기는 것을 보며 꾸준히 이러한 방법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혹은 본인이 원하는 표면과 질감, 층의 구성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2) 감정에 따른 색의 변화

그림을 그릴 때 본인의 마음을 바라보고 감정들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치유의 시작이었다. ‘내’ 삶에 다양한 일이 있었기에 보는 이에게 여러 해석이 가능하도록 많은 행위가 가해졌다. 작업에서 질감을 표현하는 것 중 반짝임도 질감의 한 종류이다. 본인의 작업에는 질감이 중요했으므로 색에 대한 고민이 크게 들지 않았다. 본인의 작업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금색(Gold)도 마찬가지였다. 색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질감을 나타내는 재료로써 취급하다 보니 초기 작업에는 색이 주는 즐거움을 크게 느끼지 못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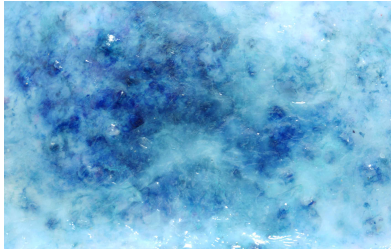
더 먼 과거에는 금을 직접 사용했는데 인본주의가 성행했던 르네상스 시기는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해 직접적인 금의 사용을 많이 줄이고 실제 금을 쓰는 것보다 다양한 색을 사용하여 금처럼 보이게 그리는 방법을 선호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시대에 따라 변화한 금색은 지금도 더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 금, 은 나아가 더 다양한 의미로 현대회화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인의 작업에서도 금에서 따온 안료 그 자체를 넣었고 특히 종교화의 신앙적 의미와 빛을 표현하기 위해 더불어 장식적인 효과까지 금색의 반짝임을 효과적으로 넣어 색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본인의 작업에서 금색은 색과 함께 질감으로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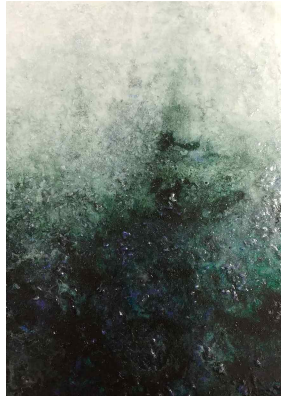
[도판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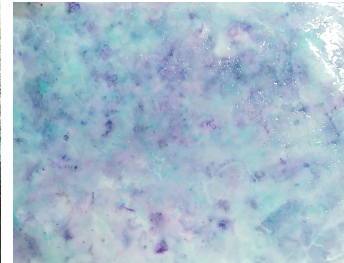
[도판 8]



[도판 9]



[도판 10]



[도판 11]

작업으로 감정치유를 시작했을 때, 형태는 없고 오로지 색만 사용했다. 용은 자신의 임상참가자들에게 내면의 심상을 그림으로 재현하도록 권고하였는데 그림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림의 색채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sup>15)</sup> 본인도 당시 작업을 할 때 파란색(Ultramarine, Horizon Blue), 보라색(Mineral Violet), 연두색(Emerald Green), 초록색(Shadow green)을 주로 사용하며 파란색 계열을 주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초록색(Shadow green, Hokers Green Hue)과 금색을 중심으로 [작품 1, 2]를 그리게 되었다. 이후 작품들에는 금색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초록색 파란색 계열은 점차 줄어들고 다양한 빨간색 계열의 색을 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파랑과 빨간은 반대되는 심리적으로 반대의미를 가지는 색이며<sup>16)</sup> 금색과 빨간색은 행운 등 겹치는 의미가 있다.<sup>17)</sup> 행운표상의 주요 구성 항목인 건강, 사랑, 성공, 수호, 지혜<sup>18)</sup>라고 한다. 작품에서 글리터의 사용이 줄어들수록 빨간색계열의 색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시 그림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차분하고 안정적인 색의 상징하는 파란색을<sup>19)</sup> 주로 사용하면서 작품을 시작하는데 안정성을 추구했다면 작품이 진행

15) 진교훈, 윤영돈, 「용 심리학의 인간학적 함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2003, p.97

16) 에바 헬러, 「색의 유혹」, 이영희 역, 예담, 2002, p.61 참조

17) 위의 책 p.100 참조

18) 이영화, 「동서양 행운표상의 상징성에 나타난 의미론적 분석과 조형요소 연구」, 경희대학교, 2009, p.6

되면서 행운과 건강을 상징하는 금색과 빨간색의 사용이 많아진 것은 색이 주는 즐거움을 점차 알아가면서 치유와 회복을 원하는 본인의 무의식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 3. 작품분석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한다. 마치 자기가 자신의 적이라도 되듯이 말이다. 자기가 자신의 적이 되면 외부의 여러 적보다도 더 위협해질 수 있다. 내면의 공격자로부터는 쉽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내면의 공격자는 우리 마음속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정확하게 가격할 수 있다. 자신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sup>20)</sup>*

인간의 기억은 불안정해서 왜곡되기도 하고 다양한 강도로 남아있게 된다. 현재에서 과거를 바라보면 감정이 뒤섞여 혼탁한 느낌이 든다.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당시 느꼈던 감정, 상황, 심리 등을 최대한 주관적으로 자세하게 풀어서 과거를 마주해야 벗어날 수 있다는 글을 수없이 읽었다.

본인은 감정치료를 받은 이후 인간의 감정, 심리 등이 크리스티교의 성경에 표현되어 있다고 느꼈고 이를 통해 위안을 받게 된다. 한 때, 무기력한 시기를 극복하고 기본생활이 가능해지며 처음으로 생산적인 활동으로 그림을 그렸다.

치료전 학생때는 주로 자화상에 매진하였었다. 색도 다양하게 표현하며 자유롭게 구사한 반면 나를 그리면 그릴수록 어렵고 ‘나’를 잘 모르겠다. 라는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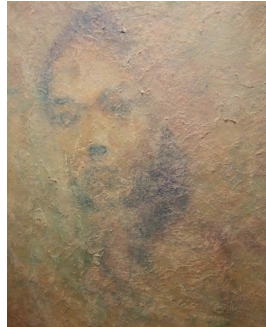
19) 에바 헬러, 「색의 유혹」, 이영희 역, 예담, 2002, p.77 참조

20) 로프 젤린, 「마음의 상처한 마주한 나에게」, 김현정 역, 나무생각, 2019, p.64

각도 같이 들었었고 치료를 진행하면서 자화상이라는 표면적인 나의 대한 단 순관찰이 아닌 앞서 접한 조연들처럼 실직한 나와의 대면에 대한 욕구가 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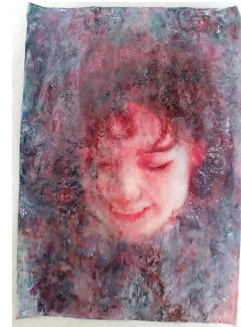
[도판 12]



[도판 13]



[도판 14]



[도판 15]

한편으로 종교에 대해 깊이 들어 갈수록 인간의 과거와 현재를 보듯 종교화가 인간의 역사를 집약적으로 잘 승화시킨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모르던 자아를 알게 해 주는 매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치료 과정 중 치유를 위한 행위로 자연스럽게 종교화 형식을 빌려 작업을 하게 된 것이다.

[작품 1, 2]처럼 시작은 모티브된 이미지의 색을 크게 변형하지 않고 그림을 그렸지만, 점차 본인의 주관적 심상에 따라 색을 재구성하였다. 두 번째는 다양한 질감으로 감정의 강도와 왜곡 등을 표현했는데 여기서 현재의 감정표현도 과거로부터 최대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작업해야 했다. 그동안 본인은 복잡한 감정과 상황, 과거를 표현하기 위해 질감과 색을 나타내어 중첩해가는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과거의 감정을 제외하고 작업의 본질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인의 작업에는 과거의 감정이 배제될 수 없었다. 적어도 감정의 강도를 조절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택했다. 마지막으로 형상의 차용이 중요했는데 이는 서양 중세와 르네상스기의 종교화를 중심으로 참

고하여 내 방식의 형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렇듯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감정에 따른 변화와 종교의 관계를 엮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본인 작업의 핵심은 '내가 '나'에게 가했던 마음의 상처를 딛고 일어 설 수 있도록 종교화를 빌려 말하는 내면과 마주하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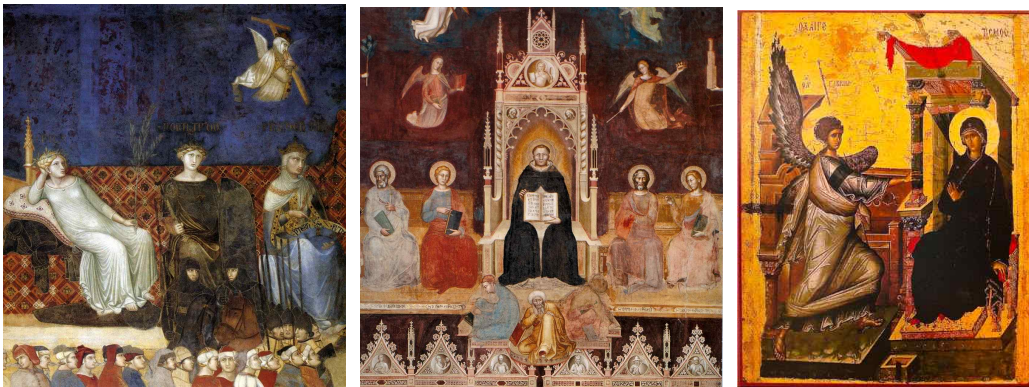
### 1) 작업의 모티브와 인물의 표현

본인은 어릴 때의 경험으로 촉발한 불안과 우울증을 병원치료와 심리치유를 병행하면서 상태가 호전되었고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재활을 시작했을 당시의 작업은 형태 없이 색만 사용했다. 그러나 윗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교화에 의지했고 그와 더불어 종교적 인물에 호기심이 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종교 공부는 본인의 불편한 심리적 요인을 순화시켰다. 특히 14세기 성모의 표정에 많은 흥미를 느꼈는데 르네상스기의 평온한 성모의 얼굴과는 다르게 이 시기의 성모의 표정은 보기에 따라서 매우 불쾌하다는 얼굴을 하고 있다. 성모 외의 얼굴에서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무척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는 부분에 주목했다. 왜냐하면, 치료를 받는 시기의 본인은 무척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을 해소할 수 없어도 겉으로는 의연한 척을 해야만 했기에 내 표정엔 생활하는 불편감이 들어 있지 않았다. 그에 반하여 그림 속 인물들이 짓고 있는 불편함은 현재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 평온하고 자애로운 얼굴이 아니었으므로 나를 대신하는 것처럼 공감하게 되었다.



[도판 16] 좌, 두치오 디 부오닌세냐(Duccio di Buoninsegna, 1308-1311), Maestà (Madonna with Angels and Saints)131, 판넬의 템페라 214×412cm.

[도판 17] 우, 조토(Giotto di Bondone, 1266-1337), 주님 승천, 1305, 프레스코 200×185cm.



[도판 18] 좌, 암브로조 로렌체티, 좋은 정부의 도시(부분), 1338-1340, 프레스코 7.7×14.4m.

[도판 19] 중앙, 안드레아 디 보나이우토, 토마스 아퀴나스의 승리(부분), 1366-1367, 프레스코.

[도판 20] 우, 마케도니아의 오희리드 성 클레멘트 성당 소장, 14세기, 판넬의 템페라 95×80cm.

[작품 1, 2]는 본격적으로 형태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선택했던 이미지를 차용한 작업이다. 본인이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며 묵상하고 원본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진행하였다.



[도판 21], [도판 22] 시모네 마르티니(Simone Martini), 수태고지(Annunciazione)  
1333, 판넬의 템페라와 금, 305×265cm.

이 작업은 이미지를 차용하여 작품의 주된 인물인 성모의 얼굴을 빌려 온 것이다.



[작품 1] 좌, Untitled, 52.0×45.5cm, mixed media on canvas, 2019.

[작품 2] 우, Untitled, 65.1×53.0cm, mixed media on canvas, 2019.

[작품 1]과 [작품 2]는 거의 같은 시기에 그려지고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형식적인 면에서도 매우 동일하다. [작품 1]의 경우, 시모네 마르티니의 ‘수태고지’ 속 마리아의 얼굴을 모티브로 재구성하였고 [작품 2]는 성 클레멘트 성당에 소장되어있는 14세기 ‘수태고지’ 마리아를 그렸다.

작가는 표정을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천사에게서 계시를 받았을 때의 표정일까 아니면 전해주기 직전의 표정이었을까 어쨌든 내가 생각하기에 그림 속 마리아의 표정은 그다지 편안하지 않았다. 그런 표정이야말로 그림으로 치유를 받고자 했었을 당시, 본인의 감정과 닮았다. 그때의 감정은 이유 없는 죄책감과 불신, 절망, 무력. 이런 감정들이 섞여서 불안하고 두려웠다. 자신감도 자존감도 모두 바닥이었다. 천사로서는 정말 엄청난 희소식을 전달하지만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얼굴은 어둡고 불쾌한 표정이었으므로 자아와 마주하기 어려운 내 감정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본인은 자애로운 인물의 표상이 짓는 불편한 표정만이 중요했다. 종교는 나를 순화시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표현된 성모의 얼굴은 그와 반대라는 것도 공감되었다. 더불어 불편한 감정을 작업에 그리고 싶었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작품 안의 얼굴과 표정에 주목하고 내 감정의 농도를 낮추어 표면 작업에 열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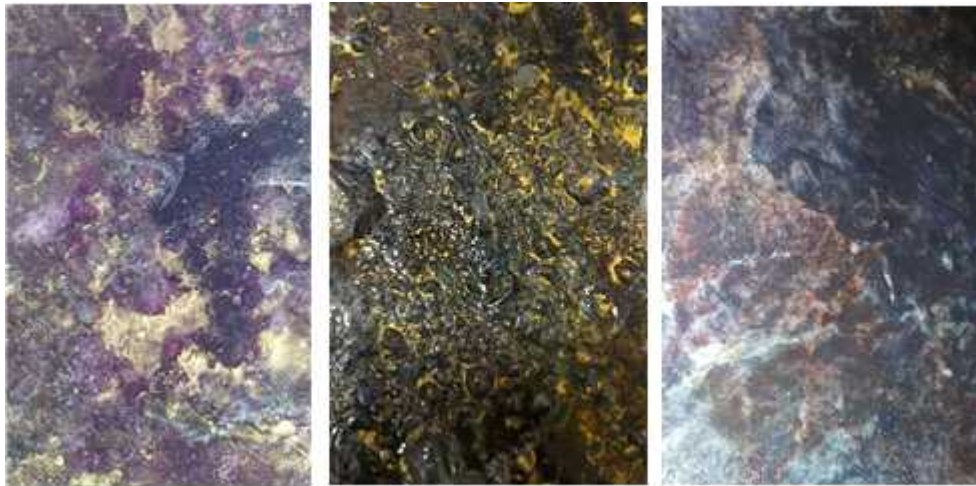
종교는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종교에 대한 인간의 믿음과 맹목적 신념도 예전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종교라는 건 인간과 인간이 만든 문명과 함께 해왔다. 바빌로니아 문학작품 중 남아있는 대표작 『길가메시 서사시』의 주인공인 영웅 길가메시(Gilgamesh)에 대해서도 인간의 존재론의 의문에 대한 고민<sup>21)</sup>이 나온다. 수 세기가 지나면서 변화한 것도 많지만 인간은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본인은 옛날 사람이

---

21) 길가메시 서사시는 인류가 기록한 가장 오래된 영웅신화로 수많은 작품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스의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보다 무려 1,500여년 앞선다. 영국의 판타지 작가 J.J.R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 시리즈도 길가메시 서사시의 영향을 받았다. 구약 성경의 대홍수도 길가메시 서사시에 언급된 대홍수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죽음의 공포에 대한 가장 위대한 서사시”라고 평가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VLTU1EE45> 2019.07.25. 서울 경제

나 현대인이나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 인간의 생과 사에 대한 근본적인 감정을 작업 안에 녹여 내고 싶었다. 종교는 종교별로 방법과 추론은 다르지만, 공통으로 말하고자 하는 진리로써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를 서술하였다. 이를 구체적인 조형적인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본인의 작업에서는 다양한 색과 투명도를 이용해 여러 겹을 쌓아 올렸다.



[도판 23]

[도판 24]

[도판 25]

책이 한 장 한 장 더해지며 두꺼워지는 것처럼 지구의 지층이 쌓이는 것같이 시간과 역사의 흔적들이 쌓는 것처럼 여러 겹의 물감과 안료, 미디엄과 바니쉬를 사용하였다. 특히 이미지의 경우 바탕과 다른 면에 그린 다음 물감 덩어리들만 떼어내어 배경과 합쳐서 표현하였다. 본인의 작업은 화면 표면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색과 투명도뿐만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질감을 만들고 싶었다. 물감을 올리는 과정에서 손으로 잡아 뜯고 날카로운 것으로 상처를 내기도 하고, 조각도로 파고, 다시 물감으로 채웠다. 또한 다른 곳에 그린 물감을 떼어다 붙이고, 사포로 표면을 갈고, 가열하고 불로 태우며 다양한 질감이 나오도록 노력하였다.

## 2) 방법적 탐구와 재구성

같은 구조가 연속하여 중첩되면 전체적으로는 질감의 한 표현으로 감지된다.<sup>22)</sup> [작품 3, 4]는 [작품 1, 2]와 공통점도 있지만, 표면 가열을 통한 질감묘사뿐만 아니라 도려내고, 파내어, 뜯고, 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질감을 표현했다. 처음엔 형상도 14세기 종교화에 국한했다면 15세기 혹은 기원전 작품까지 영역을 넓혀서 얼굴을 관찰했고 지극히 본인의 주관적 선택에 따라 무작위로 프라 안젤리코(Fra Angelico, 1390/95-1455) 나 고대 그리스의 도자기 그림까지 차용하였다.

작업하며 방법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 오히려 중첩의 느낌이 들면서 본인의 복잡한 감정과 상황, 과거를 표현하기 쉬워졌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게 된다. 바탕의 중첩은 이미지와 배경이 어우러질 때까지 반복하였다. 화면에 들어가는 재료는 불규칙하지만 투명하다.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투명한 바니쉬와 미디엄을 물감과 혼합한 뒤 중첩이 보이게 하여 실질적인 깊이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겹겹이 쌓아가는 재료들이 건조되는 기다림과 열풍으로 가열하면서 끓는점까지 도달하는 것을 지켜보는 과정은 ‘내’가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며 치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작업의 방법이 변화한 기간이 길진 않았지만, 그때만큼은 종교적 의미가 중요하지 않았던 시기였다. 심리치료 과정에서는 우울한 과거가 현재의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받지 않도록 한다. 특히 과거에 느꼈던 감정을 돌아보는 일은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질감을 통한 중첩이 보여야 했고 시간을 쌓아 표현하여 과거를 마주하는 본인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

22) “질감이 되는 구조의 중첩...” 0302lss님의 블로그, 2005년5월11일 수정, 2020년 11월4일 접속.  
<https://blog.naver.com/0302lss/140012795338>



[작품 3] 좌, Untitled, 90.9×72.7cm, mixed media on canvas, 2019.

[작품 4] 우, Untitled, 100.3×100cm, mixed media on canvas, 2019.

[작품 3]의 모티브는 피렌체 산마르코 박물관(수도원)에 있는 프라 안젤리코의 ‘수태고지’속 마리아이다. 이 작품은 [작품 1, 2] 때보다 분위기를 더 적극적으로 그렸다. [작품 1, 2]와 다르게 표정이나 얼굴이 아닌 본인이 느끼는 작품의 분위기나 감성이 전달되었으면 했다. 작업의 기본 틀은 앞선 작업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번에는 가열하여 부풀어 오른 부분을 사포로 갈고 반복하였다. 사포로 갈게 되면서 납작하면서도 어느 정도 깊이감 있는 형태가 만들어졌다. 재료들이 완전하게 마르기 전에 적당히 힘이 가하면 어느 정도 뜯어낼 수 있다는 것을 과거의 자화상 작업(도판 12-15)과 [도판 7-11]를 작업하면서 알 수 있었다. 누구나 감정에 솔직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손으로 뜯어낸 물감층이 떨어져 나가면서 배경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색인 코랄 레드(coral red)와 형광 분홍(fluorescent pink)이 보이면서 마치 근육 층이 드러난 것처럼 기괴한 모습

으로 표현했는데 너털너털하게 표현했던 과거의 작업(도판 7-11)과 달리 사건, 시간, 공간, 상황, 감정, 기억 등을 표현하며 본인의 감정을 담담하게 그려내도록 하였다. 이 시점에서 본인은 작업을 통해 과거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며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분명 처음 의도한 대로 그림의 피부색으로 덮어 버릴 수도 있었지만 뜯어진 모습으로 끝냈다.



[도판 26] 악타이온에게 활을 겨누고 있는 아르테미스, 크라테르(도자기종류) 기원전 470

[작품 4]는 [도판 26]의 악타이온에게 활을 겨누고 있는 아르테미스의 도자기문양을 모티브로 작업하였다. 2015년 이때부터 본인은 아크릴 물감을 이용한 중첩에 대해 연구를 시작하였다. [작품 3]을 통하여 이전 그림보다 두께가 있다는 걸 파악하였기에 [작품 4]는 보다 더 충분한 두께를 만들면 원하는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재료들을 중첩하여 충분한 두께를 만들고 커터 칼과 조각도를 이용하여 물감층을 가능한 한 많이 들어냈다. 파인 부분에 그동안 사용하던 재료(미디엄, 물감 등)들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홈 사이로 한 겹 한 겹 채워 넣었다. 그동안 성모의 이미지를 주로 차용했지만 그리스 신화 속 아르테미스를 선택한 이유는 어릴 때부터 보아 온 그리스 로마신화에 영향도 있었고 아르테미스의 여러 가지 상징 중에서 아름다움, 안전함(ἀπειρίς)과 자유로움에 끌렸다. 본인이 믿는 크리스트

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지만 신화의 서사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작업하게 되었다.

[작품 4]는 [작품 3]보다 표면적으로 더 깊게 뜯어냈지만, 결과적으로는 평평한 표면으로 완성되었고 두께도 충분했다. 이 작업에서는 다른 작품들보다 표면이 완만하고 매끄럽게 마무리되었는데 아마도 감정은 솔직하게 드러내기 어려워 매우 힘들지만 힘들다는 것을 숨기는 본인의 상황을 방어적 의미로 표현한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말하는 것만큼 자신의 성향을 표현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 본인은 다양한 면에서 내면을 숨기다 보니 어느새 자신의 호불호(好不好)를 잊게 되고 나아가 본인은 어떤 사람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 그림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표현했지만 현실의 나는 여전히 솔직하지 못했고 작업은 점점 나를 나로 있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 3) 빨간색으로의 변화

본인이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감정의 변화와 굴곡이 있었다. 이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이다. 본인의 경우에는 다양한 원인으로 감정상태가 호전과 악화의 반복이 번갈아 가며 지속되었다. 이 때 작업이 감정에 많은 영향을 주어 각 시기의 그려진 작품의 차이가 보인다. [작품 1, 2]는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을 때쯤 진행하였으며 [작품 3, 4, 5, 6, 7]은 상대적으로 감정이 유지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작품 8]은 악화하였을 때 진행된 작품이다. 심신의 변화의 따라 자연스럽게 표현이 변화되는 걸 결과물들을 통해 느껴졌다. 특히 [작품 8]에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작품 1, 2]의 경우 앞에서 설명했듯이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여 안정성을 우선으로 두고 작업을 진행했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작업방식에 익숙해지고 싶었다.



[작품 5] 좌, Untitled, 130.3×97cm, mixed media on canvas, 2019.

[작품 6] 우, Untitled, 162.2×112.1cm, mixed media on canvas, 2020.



[작품 7] 좌, Untitled, 162.2×130.3cm, mixed media on canvas, 2020.

[작품 8] 우, Untitled, 193.9×130.3cm, mixed media on canvas, 2020.

종교화를 그린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 본인의 작업에서는 다른 작품들보다 금색 안료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작품 4]의 경우도 [작품 1, 2, 3]과 조금은 다른 주제와 방식이이었기 때문에 [작품 1, 2]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작업에 임하면서 [작품 1, 2]와 비슷하게 화면에서 색감 위주와 금색 안료를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

[작품 5]는 마리아가 아닌 천사를 그린 것이다. [작품 3]에서 이미 프라 안젤리코의 수태고지의 마리아를 그렸기에 이번에도 구성은 다르지만, 성모에게 예수 잉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그렸다. [작품 3]에서부터 이미지에 주관적인 효과를 더 가미하기 시작했는데 [작품 3]은 질감이 좀 더 두드러졌다면 [작품 5]는 인물의 표정에만 관심이 있었던 [작품 1, 2]에서와 다르게 표정뿐만 아니라, 천사의 상황도 생각하게 되었다. 타인 혹은 프라 안젤리코(Fra Angelico, 1390/95-1455)의 자의식이 들어간 작품을 보고 천사가 당혹스러울 마리아에게 내던져진 상황을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모습은 인간의 이기심과 닮아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하였다. 인간이라면 너무 힘든 상황인 한 여인에게 가혹하리만치 아름다운 얼굴의 천사가 임신 소식을 전하는 부분에서 괴리감이 느껴지고 말과 행동과 생각이 제각각인 본인조차 아직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것만 같기에 나도 양가적인 감정으로 천사를 그리게 된 것이다. 이처럼 알 수 없는 감정인 막연함, 당혹감, 숭고함, 이기심 등의 색 표현으로 빨간색 파란색 분홍색 개통의 색을 바탕색에 사용하였다가 나중에는 안개가 낀 거같이 모호하게 마무리가 되었다.

[작품 6] 흰 벽과 흰옷 푸른색 커튼으로 이루어진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Dante Gabriel Rossetti, 1849-1850)의 보라 여호와의 시녀(수태고지)(Ecce Ancilla Domini)를 모티브로 그렸다. 내가 차용하여 그린 마리아는 사람들이 기억할 때 ‘붉은 여자’라고 말할 만큼 색이 주는 요소가 더 강한 작품이다. 빨간색은 긴장감을 높인다고 한다.<sup>23)</sup> 본인은 오랜 무기력증과 우울증으로

인한 침전된 감정에 좀 더 활기를 불어넣고 싶었기에 무의식적으로 빨간색의 사용을 점점 늘어난 것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작품 7]의 제작과정은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였다. Circle of Rogier van der Weyden (Flemish, 1399-1464) 의 그림이 빨간색 침대 앞에 어두운 색 옷을 입은 마리아이기도 했지만 이미 앞선 작품들에서 원본의 색채는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기에 본인의 바쁜 현재 상황이 반영되어 모티브가 되었던 진한 빨간색에서 힘을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작품 8]을 시작될 때쯤 본인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정신적으로 감정을 조절하기 힘들어졌다. 이 작품은 다른 작업들과 다르게 초반부터 계획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진행되었다. 원래 계획은 노란색(Indian Yellow)이 섞인 회갈색으로 그리려고 했었다. 형태 또한 뜻대로 그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작품 8]은 주로 표면 작업부터 다지기 시작했고 표면위에 열풍과 더불어 토치로 그을리기도 하였다. 특히 이 작업에서는 많은 색이 들어갔는데 옐로우 오우커(Yellow Ochre), 번트 엄버(Burnt Umber), 반다이크 브라운(Vandyke Brown), 테허 루즈(Terre Rouge), 버밀리언 휴(Vermilion Hue), 형광 주황(fluorescent Orange) 등을 사용했다. 또한 주로 색칠된 빨간색들은 그을려서 어우러지게 하였다. 열풍 외에도 토치를 이용하게 된 이유는 열풍을 사용할 때 꼬박 열풍기를 들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꼈다. 가열로 인한 일부 물감의 색의 변화와 그을음을 보며 화면의 조화를 더욱 생각한 계기가 된다.

작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빨간색의 비중은 높아지고 금색 안료와 같은 글리터의 도드라지는 사용이 줄어들었다. 빨간 계열 색은 가시광선 중에서도 긴 파장으로 사람 눈에 더 잘 인지하게 된다. 그만큼 빨간색은 색으로써 강한 인상을 준다. 그렇게 완성한 작품 안에서는 빨간색이 점점 늘어갔는데

---

23) 홍근주, 김수미, 이범진, 이동희, 안성관, 「컬러테라피가 스트레스와 뇌파변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미용미술학회지 제7권 제1호, 2009, p.56

그 색이 주는 에너지는 본인에게도 적잖은 생동감을 주었다. 아마도 빨간색의 사용은 완벽하게 확신할 수 없지만 본인에게 행하는 색채요법(컬러테라피)과 유사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본인은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고자 하였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도 본인의 완치와 작업의 완성을 희망하며 사람이 멀리서도 인지할 수 있는 행운과 생명을 상징하는<sup>24)</sup>인 빨간색으로 색이 품고 있는 희망을 따라가길 소망하고 있다.

---

24) 에바 헬러, 「색의 유혹」, 이영희 역, 예담, 2002, pp.94-102 참조

### Ⅲ. 결 론

이 논문은 2019년부터 제작되어 2020년 석사 청구전에 전시된 작품들을 분석한 글로써 종교화를 통한 주관적인 내면치유과정을 밝히는 글이다. 논문을 통해 본인이 겪은 유년기의 상실로 인한 혼란스러운 감정을 직시하며 작품 안에 녹여내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한대로 본 논문에서의 작업은 현재에도 적잖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과거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심리적 치유 과정에 대한 탐구이다. 감당하기 힘든 사건을 직면한 사람은 생존을 위한 각자만의 반응이 나타난다. 당시에 사건으로 인해 경험했던 감정을 잘 소화해 내지 못하고 묵인하게 되면 현재의 생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과거는 본인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와 내가 진행하는 미술작업에 까지 근본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에 본인은 자기 성찰을 통해 과거를 인정하며 받아드렸을 때 비로소 부정적인 힘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본인의 작업에 긍정적으로 녹여내고 싶었다. 본인이 이 연구를 통해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오랜 기간 쌓아온 감정을 주관적인 해석과 조형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내면의 회복에 도움을 주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었다.

본인은 나의 감정을 대변해주는 주요 매개체가 종교라고 생각했고 특히 대상의 표정에 집중하여 작업으로 나타내어 종교화의 얼굴에서 그 모티브를 찾았다. 물론 종교화에서 주요 모티브를 차용했지만 그림 속 본인에게 공감되는 표정들과 분위기는 유지하되 표면 질감과 색을 변환하여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집중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작업 진행 과정에서는 감정을 치유해주고 극복하는 역할이 되기를 기대했다. 그리고 작품이 완성되면서 차츰 치유와 극복 외에도 작품을 위한 학문적인 탐구도 중요했다. 14세기나 15세

기 종교화에서의 형성배경이나 주인공의 표정을 연구하며 본인의 감정을 이입하고 나아가 짧은 시기지만 종교적인 이미지가 아닌 얼굴에도 흥미를 기울이게 되었다. 앞으로도 작업을 전개해 나아가는 데 있어 대상의 표정과 재료 및 색채의 표현방법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할 계획이다.

특히 형식적인 면에서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중첩기법은 ‘내’가 갖고 있는 다양한 마음의 지층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방법적으로 꾸준히 추구하는 중요한 조형 언어이다. 또한 화면의 변화를 모색하고 색의 선택에서도 본인이 구현하려는 표정과 그에 맞는 색채를 연구함과 동시에 보편적으로 관객에게 호감을 주는 색과 표정의 영역을 찾아 점차 발전된 작업을 만들고 싶다. 하지만 너무 주관적인 본인의 감정을 이입하여 심상을 표현했고 지극히 개인적 심리에 집중하여 ‘나’만의 작업으로 치부되지 않을까하는 점과 전시했을 때 그런 점들로 인해 관객과의 소통이 적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

심리학 논문에서 “인간은 누구나 환자이다”<sup>25)</sup> 라고 쓴 글을 보았다. 아마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삶을 영위하다보면 누구나 인간에게서 얻은 마음의 상처는 하나씩 있게 마련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다는 말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본인은 이 글이 인간의 감정인 희노애락에서 행복만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다. 그래서 본인만이 느끼는 것이 아닌 거시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사춘기를 지난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다.

본 연구를 통해 심리적인 치유를 도모하면서 나아가 회화를 통해 본인이 경험한 내적 감정을 표출하고 시각적으로 표현이 잘 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본인의 내면을 한층 깊숙이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며 과거의 감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여 나아가 완전한 치유와 새로운 현재와 마주하기 위해 주력하고자 한다.

---

25) 진교훈, 윤영돈, 「융 심리학의 인간학적 함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2003, p.66

## 참 고 문 헌

길가메시 서사시

김정곤 논설위원, 서울 경제, 2019, <https://www.sedaily.com/NewsView/1VLTY1EE45>

김경일, 매일경제[CEO 심리학] 친숙한 것과 아는 것의 차이, 2013.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3/06/444513/>

김수빈, 평생학습타임즈 ‘용망’과 ‘욕구’의 구별, 2020, <http://l1times.kr/?p=54324>

김승환, 「현대미술에 나타나는 촛불과 해골: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작품을 중심으로 Candle and skull represented in contemporary art - in the case of Gerhard Richter」 현대미술학회, 2016.

네이버 블로그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하이데거의 ‘영사성’과 ‘반복’ 존재는 생명의 강물의 블로그, 2020년 12월 22일  
접속, <https://m.blog.naver.com/saiculture/221822992546> (이기상 철학과 교수)

네이버 블로그 용의 심리분석

“[인문02] 용의 분석적 심리치료” 부뚜막 강아지 블로그, 2020년11월12일 접속,  
<http://blog.naver.com/faransan/222075585206>

네이버 블로그 이젠하임제단화

“야옹. | 이젠하임 제단화”justinKIM 블로그, 2020년10월22일 접속,  
<https://m.blog.naver.com/justinceo/30134952505>

네이버 블로그 조르주 루오의 대한 설명

“프랑스의 화가’ 조르주 루오 (Georges Rouault)” Accountant Beyond Artist  
블로그, 2020년12월20일 접속, <https://m.blog.naver.com/leespider/220684843543>

네이버 블로그 질감과 구조의 중첩

“질감이 되는 구조의 중첩..” 03021ss님의 블로그, 2020년 11월4일 접속,  
<https://blog.naver.com/03021ss/140012795338>

롤프 켈린(Rolf Sellin), 「마음의 상처한 마주한 나에게」, 김현정 역, 나무생각, 2019.

린다 개스크(Linda Gask), 「당신의 특별한 우울」, 홍한결 역, 월북, 2020.

심혜숙, 왕정희,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과  
의 관계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 Social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of the  
Elementary School Children」,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01.

아서 마크맨(Arthur B. Markman), 「스마트 싱킹(Smart Thinking)」,  
박상진 역, 진성북스, 2012.

약사공론 기자, 약사공론, ‘성 안토니의 불’을 일으키는 맥각균의 정체 <25>피테르  
브뤼헬의 회화 『걸인들』 2013,

<https://www.kpanews.co.kr/column/show.asp?category=&idx=82436>

에바 헬러(Eva Heller), 「색의 유혹」, 이영희 역, 예담, 2002.

이영화, 「동서양 행운표상의 상징성에 나타난 의미론적 분석과 조형요소 연구 A Study on the Semantic Analysis and Formative Elements which showed in the Symbolical Nature of Fortune Symbols of the East and the West」, 경희대학교, 2009.

이임정, 윤관호, 「자기효능감을 통한 인간욕구의 이해 The understanding of human needs according to self-efficacy」, 한국경영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8.

진교훈, 윤영돈, 「융 심리학의 인간학적 함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thropological Implications of C.G. Jung's Psychology」,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2003.

지혜 요법

The Wosdon Therapy™ Institute,

<https://www.wisdomtherapy.com/wisdom-therapy> 참조.

한상봉, 가톨릭일꾼, [루오] 예술하는 노동자, 조르주 루오, 2018,  
<http://www.catholicworker.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

홍근주, 김수미, 이범천, 이동희, 안성관, 「컬러테라피가 스트레스와 뇌파변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미용미술학회지 제7권 제1호, 2009.

## ABSTRACT

### A Subjective Study on Psychological Remedy through Religious Paintings and the Act of Spiritual Painting

- Focusing on Researcher's work -

Park Ha Young  
Dept. of Western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article is a study of the process of healing through religious paintings. Starting from 2019 to 2020. I have paid special attention to its formative side and the environment of which it developed. I've created paintings that depict my faith, expressing my own depression and anxiety from personal history.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myself better by looking into the process and the meaning of healing, through the expressive act of painting.

It is not overnight the history and culture of humanity formed. Rather, it has been slowly built from the ancient days of hunting. Starting from totemism, followed by animism and shamanism, we have been cultivating our intellectual capabilities as we struggled to survive. Such struggle

encouraged religions and myths to bloom. As the modern age dawned, the mystery of religions have been pushed away by science, causing the influence of religions to be reduced. However, science could not replace the cultural and historical legacy that religions offer, held dearly by many, including me.

When I paint, it is usually about my spiritual side. We as painters all have different interests; landscapes, still-life, abstract, or religions. No matter the subject, the artworks function as a channel to tell the world the story, the culture, and the beliefs of the painter's time. This is because one can rarely separate their own experience from their creation. I am no exception. I lost my father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Though I was young, the emotional pain and confusion was real. I chose Christianity to cope with my pain and to tend to my wounds. Religious groups provided me a sense of empathy and solidarity. I saw people help each other to feel accepted and find peace of mind. It also helps one to recover from traumatic experiences, as it did for me. To some, my body of work might seem like a product of extreme union of religion and art. However, what I hope to describe through this article is how such a union can tremendously affect one as it talks to the heart, bringing a profound change in our lives.

This article is focused on my healing process through religious paintings, and how deeply related it is with my faith. I also aim to explain about myself, based on finding peace through religion, especially Christianity. Furthermore, I explored the power of soothing effect of creative activities.

This article will explain the kind of art I make; religious paintings whose

purpose is psychological remedy, based on my unique perspective. It gave me a chance to delve into how the subject of my art is related to my personal history. It will also describe the impact of creative art-making activities on individuals in terms of formative aspects, using my own experience as an example. Everyone has their own defensive mechanisms; I hope this article motivates the readers to consider the healing effect of faith and art.